Josephine Akvama Hoffmeyer

1 집 안에 달을 들여놓고 싶다는 열망에서 출발한 다비데 그로피의 문 램프. 종이의 내추럴한 물성으로 밤의 정취를 조율한다. 베딩은 파일 언더 팝의 메리노 울 핀 스트라이프 제품.

2 미색의 배경을 뒤로하고 파르사드 파르잔키아의 회화가 묵직하고 강렬한 잔상을 남긴다. "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계단 설계는 홈 인테리어 중 가장 용감한 시도였다. 3개 층이 분절되지 않기를 바랐기에 계단은 마치 종이를 얇게 접어 연결한 것 같은 유니크한 형태로 완성했다."

3 손으로 조심스레 그어 내린 듯한 여러 겹의 선이 새겨진 타일과 그 중심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원형 조명 거울을 단 욕실. 스트라이프 패턴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를 알 수 있다.